



메르세데스-벤츠 GLA



르노삼성자동차 QM3



쌍용차 티볼리

지난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화두 중 하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 중에서도 특히 소형 SUV였다. 지난해에는 레저 열풍의 확대에 힘입어 11월 말 기준으로 SUV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대를 돌파하는 등 SUV가 큰 인기를 끌었다. SUV 가운데 특히 소형 SUV는 크기가 작고, 연비가 좋은데다 값도 비교적 저렴해 여성과 젊은층 등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새로운 SUV 수요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미년 새해에 국내 시장에서 소형 SUV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개척한 한국GM의 쉐보레 트랙스, 감각적인 디자인과 18.5km/ℓ에 달하는 높은 연비 등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킨 르노삼성자동차의 QM3에 이어 이달 말에는 쌍용차가 시운을 걸고 개발한 티볼리가 시장에 공식 출시되며 경쟁에 가세할 예정이다.

트랙스는 지난해 1만368대가 팔려 전년보다 판매가 28.6% 늘었고, QM3는 1만8191대가 판매돼 무려 1481% 성장한 바 있다.

소형 SUV 경쟁 뜨거워진다

한국GM 쉐보레 트랙스, 르노삼성 QM3 이어 쌍용차 티볼리 출시
수입차 티구안·벤츠 GLA등도 지난해 상륙... 시장 쟁탈전 치열 전망

쌍용차는 티볼리를 ‘내 생애 첫 SUV’라는 컨셉트 아래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용성, 최저 16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아 생애 처음 SUV 구입을 고려하는 젊은층과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최근 소형 SUV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시

장 환경은 우호적인 편”이라며 “국내 최초로 계기판에 6가지 색을 적용하고, 운전대에는 대형 세단에서나 볼 수 있는 동급 최초의 열선장착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성을 내세워 경차부터 소형차 수요층까지 폭넓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수입업체도 소형 SUV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소형 SUV 각축전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수입업체에서는 소형 SUV로 분류되는 폴크스바겐의 티구안이 지난해 수입차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한 것을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의 GLA, 포드의 올 뉴 링컨 MKC, 렉서스의 NX300h, 닛산의 캐시카이 등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에 대거 상륙했다. 이들 소형 SUV들은 올해는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 확대를 노릴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경차나 소형차를 타던 소비자들이 SUV로 눈을 돌리면서 처음 고려하는 모델이 소형 SUV”라며 “생활방식의 변화로 최근에는 경차나 소형차를 사던 사람들도 생애 첫차로 소형 SUV를 사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흐름 속에서 소형 SUV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맞춰 업계의 경쟁도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2000cc 이상 차량 가격 내렸다

개별소비세 6%→5%로 인하 따라 수십만원~수백만원 ↓

자동차업계 대부분이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해 연초부터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해 차값을 내렸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에서 파는 모든 2000cc 초과 자동차는 생산지와 무관하게 차 값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가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해당 차종의 차값이 수 십만원부터 최

대 수 백만원 선까지 인하됐다. 국산업체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경우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싼타페, K7, 쏘렌토, 모하비 등의 모델의 가격이 36만~134만원 내렸으며 에쿠스 5.0 프레스티지가 1억992만원으로 최대폭인 134만원 인하됐다.

한국GM은 지난해 12월부터 말리부, 캡티바, 알페온, 카마로 등 2000cc 이상 차종 4개에 대해 차량 가격의 1%인 31만~46만

원을 내려 팔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자사 플래그십(최고급) 세단인 SM7에 대해 차값에 따라 40만~50만원 인하했다.

수입차도 대부분 개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해 판매가를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E-클래스, S-클래스 등의 2000cc 이상 차종에 대해 최저 4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평균 1% 가격을 인하했다. 하반기 출시 신차도 인하분을 적용해 내놓는다.

BMW 그룹 코리아도 국내 판매 중인 배기량 2000cc 이상 모델 25개에 대해 차종에 따라 40만~100만원 가격을 낮추고 밝혔다. 대상 모델은 5·6·7시리즈와 GT, 고성능 M가 등이다. 가격 인하폭이 최대인 모델은 M6 그란 쿠페다. 토요타와 렉서스도 일부 가솔린 모델을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해 소폭 내릴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전 차종은 보증정책 대폭 강화 등의 혜택을 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완성차 5개사 894만대 판매 내수시장 3년만에 증가세로

자동차 내수시장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내수시장 성장에 힘입어 현대·기아차의 연간 판매실적이 800만대를 처음 넘어섰다.

지난 4일 국내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 5개사는 지난해 국내외 해외에서 전년 대비 861만972대보다 3.9% 늘어난 894만5252대를 판매했다.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145만8311대, 수출은 3.5% 증가한 749만1441대였다. 업체별 판매량은 현대차 496만3456대, 기아차 304만1696대, 한국GM 63만363대, 르노삼성 16만9854대, 쌍용차 13만9883대 순이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두 업체를 합친 판매량은 5.9% 증가한 800만5152대로 연간 판매실적 800만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 가운데 도요타, 폴크스바겐, GM, 르노닛산에 이어 5번째로 800만대를 넘어섰다.

전년 실적과 비교해서는 르노삼성이 29.6% 늘었고 기아차와 현대차의 판매량도 각각 7.6%, 4.9% 증가했다. 반면 수출 감소로 타격을 입은 한국GM과 쌍용차의 판매량이 각각 18.9%, 2.0% 감소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완성차 5사 모두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출근 침체일로였던 내수시장 규모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동차 내수는 2011년 1.5% 증가한 이래 2012년 -2.2%, 2013년 -0.2%로 줄곧 하락세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차 효과 못보는 현대차 ‘아슬란’ 지난해 판매 목표치 절반도 못미쳐

현대자동차가 ‘수입차 대항마’로 내놓은 고급 전륜구동 세단 아슬란이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출시된 아슬란은 12월 말까지 2551대가 팔리는데 그쳤다. 출시 당시 현대차가 밝힌 판매 목표인 600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현대차는 12월에 주요 기업들의 임원인사가 마무리되면 차량 교체 수요도 늘면서 판매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

슬란의 판매량은 11월 1320대에서 임원 인사철인 12월에는 992대로 오히려 줄었다.

초반 성적이 부진한 것은 현대차가 상무급 임원을 겨냥해 주요 수요층으로 잡았던 법인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등은 임원들에게 제공하는 법인차량으로 아슬란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애초 우려했던 모델 간 간섭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슬란은 그랜저와 제네시스 사이급 모델로, 그랜저나 제네시스의 수요가 아슬란으로 일부 이동해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그랜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3% 늘어난 1만2564대가 팔렸고, 제네시스는 166.9%나 증가한 2967대가 팔리며 오히려 상승장구했다.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 ①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이면코너 (현대자동차위)
- ②주차장 고정완비 E/L 시설됨
- ③임대료 보3천 130만 (상무지구서 제일 저렴함)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 ① 기본 경매 강의
- ② 바로 실전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매주 수요일 10시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오전10시~오후 7시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①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②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 ③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 ④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 ⑤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 ⑥ 광산구 월곡동 (토 208㎡, 건 250㎡) 감평가 1억4천3백 최저가 1억4천3백
- ⑦ 북구 두암동 (토 198㎡, 건 512㎡) 감평가 3억9천8백 최저가 2억9천8백
- ⑧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 ⑨ 북구 중흥동 (토 133㎡, 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토지

- ① 서구 쌍촌동 쌍촌역 2분 대로면 최저 41억(1,170평)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